

보도자료

작성부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담당자 언론·홍보	전성배 과장 02-397-2036 권오영 전문위원 02-397-203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담당자	황지은 전문위원 044-211-1114
		한국개발연구원	담당자	표초희 홍보팀장 044-550-4027
보도일시	2018년 5월 25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월 24일(목) 정오 이후 보도 가능			

국가 미래비전 설정을 위한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 국제 컨퍼런스 ‘포용’, ‘혁신’, ‘평화’의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모색

- 정책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1개 국책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국제컨퍼런스 개최 -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룡)가 주최하고, KDI(한국개발연구원)(원장 최정표)의 주관하에 11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참여한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Inclusive Korea 2018)’ 국제컨퍼런스가 5월 24, 25일 이틀간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개최된다.

- 일 시: 5월 24일(목)~25일(금)
- 장 소: The-K 호텔 서울(양재동 소재)
- 주 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주 관: KDI(한국개발연구원)
- 참 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통일연구원

□ 이번 국제컨퍼런스(Inclusive Korea 2018)는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미래비전의 세 가지 원칙으로 ‘포용’, ‘혁신’, ‘평화’를 제시하고, 이를 화두로 기조세션과 6개 세션에서 주요 연사들이 발제에 나선다.

- (포용) 모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국민주권의 원칙하에 민주주의를 더욱 신장하고, 고용안정, 소득증진, 교육기회 확대를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 모두의 삶의 기본조건을 보장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혁신) 창의적 학습으로 국민 개개인의 인적자원을 축적하고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이루어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경제체제를 전면적으로 혁신경제로 전환
 - ※ “포용”과 “혁신”은 상호보완적 관계로서 사회보장과 혁신경제가 융합하는 활력 있는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핵심 가치
- (평화) 안보와 상생의 균형 잡힌 포용정신에 기반하여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모범국가로 발전

□ 행사 2일차(5.25) 「기조세션」에서 로버트 라이시 미 UC버클리 정책대학원 교수는 “포용사회의 핵심은 청년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포용적인 사회는 청년들이 경제계층에 상관없이 교육과 자본을 기반으로 쉽게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 이어진 기조발제에서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대기업의 횡포와 반칙을 규제하고 서민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실시하는 등 개혁적인 뉴딜정책을 통해 미국이 대공황 위기를 극복하였다”며, “한국형 뉴딜 정책을 도입해 국민들이 과감하게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 「세션1. 촛불민주주의의 등장과 새로운 민주주의 패러다임」에서는 메사우드 롬다니 튀니지 경제·사회적 권리 포럼 회장(15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이 기조발제를 통해 “사회 정의가 민주주의 성공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임”을 제시한다.

- 정상호 서원대학교 교수, 저스틴 기차드 미 펜실베이니아대 연구교수, 윤건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은 한국의 촛불혁명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패러다임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각각 발제할 것이다.
- 「세션2.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에서 강동수 KDI 연구조정실장은 “포용적 성장의 성공을 위한 핵심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며, 생산과 노동시장에 대한 동시적 규제개혁이 추진되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 마커스 헤스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산업국장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구축 경험을 토대로 중소기업 지원, 규제체계 개선 등 정책적 대응이 어떻게 산업현장을 혁신으로 이끌었는지 소개한다.
- 「세션3. 녹색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에서는 마이크 더글라스 미 하와이대 명예교수가 “인류세(Anthropocene) 시대에 포용은 국가 간 환경과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원천”임을 밝히고,
 -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 분야에서 취약한 계층, 지역, 세대를 포용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할 예정이다.
- 「세션4. 전환시대 포용복지국가의 과제」에서 리처드 프리만 미 하버드대 교수는 “혁신과 기술발전의 영향은 일자리 감소보다 주로 임금에 달려 있다”며 “고용과 교육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의 혜택을 더 많은 근로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바뀌나가야 한다”고 제시한다.
- 「세션5. 지속가능한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에서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기초발제를 통해 “균형발전 정책이 사람을 돌보고 살리는 돌봄과 살림정책인 동시에 어떠한 정책수단에도 뒤지지 않는 사회통합 정책”임을 밝힌다.

- 이어서 김동주 국토연구원 원장,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은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 정책,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위한 성평등 정책,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정책에 대해 각각 발제할 계획이다.
- 「세션6.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번영」에서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5월 한미정상회담, 6월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안정적인 비핵화 구축에 필요한 문재인 정부의 평화로드맵 실천전략”을 제시한다.
- 한편 행사 1일차(5.24)에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세대(청소년·청년층)의 다양한 고민과 정책제안을 청취하는 특별세션 ‘미래세대가 꿈꾸는 대한민국’이 마련됐다.
- 하자센터 10대 연구소팀 등 6개 청소년팀과 한반도정책컨센서스 등 청년팀 3개가 무대에 올라 청소년·청년에 관한 노동과 권리 등을 주제로 발표하고, 교육부, 여성가족부 차관 등 정책당국자들이 미래세대의 질문에 답하는 토크콘서트가 이어졌다.
- 토크콘서트 후에는 미래세대의 정책제안을 담은 책자를 직접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하여 2일차 컨퍼런스에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미래세대에게 꿈과 가능성을 심어줄 청년 멘토 2명(최이현 모어댄 대표, 김희수 커피지아 대표)을 초청해 어려움을 딛고 창업에 도전하게 된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 정치·외교, 경제, 사회, 남북관계 등 제반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미래비전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기획된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총 8개 세션 54명의 연사들이 참여해 2일간 각 분야별로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펼쳐졌다.

- 국무총리를 비롯해 주요 부처 장관들의 축하메시지가 이어진 가운데 각계 전문가와 미래세대, 일반인 등 약 1,500여 명이 참여했다.
- 이번 컨퍼런스의 개최식, 기조세션은 공식 홈페이지(www.inclusivekorea.kr)에서 실시간 온라인 시청도 가능하다.

첨부1. 세션별 발표요약문

첨부2. 세부일정

첨부3. 주요 연사 프로필

첨부4. 행사장 약도 및 취재지원 계획

※ 별첨. 발표자료

기조연설 1.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

로버트 라이시 미 UC버클리 정책대학원 교수

- 소득과 부의 불평등 확대, 중산층 붕괴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 심화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같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함.
 - 특히 경제적 양극화로 청년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좌절감이 심화될 경우 그 영향은 사회적 냉소주의, 청년 실업률 증가, 구매력 저하 등으로 이어져 국가의 잠재적 경제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음.
- 저성장과 양극화 심화에서 비롯된 한국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포용'과 '혁신'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
 - 포용사회의 핵심은 청년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들이 경제계층에 상관없이 교육과 자본을 기반으로 쉽게 인적 자원을 축적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
 - 거대자본이 민주제도를 지배하는 행위를 막고 소기업과 새로운 기업, 투자자, 혁신가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혁신을 실현해야 경제 역동성과 사회적 신뢰를 제고해 갈등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 가능해짐.

기조연설 2. 한국형 뉴딜의 모색

이정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지속했으나 성장률 하락과 양극화 현상은 심화됨.
 - 1920년대 미국은 경기 침체와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뉴딜 정책을 도입, 억강부약을 핵심으로 제시함. 이는 대기업의 횡포와 반칙을 규제하고 서민 즉,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실시하는 등 여러 개혁적인 조치들을 포함해 대공황 위기를 극복한 원동력이 됨.
 - 대한민국도 이처럼 과감한 뉴딜적 발상을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이중고를 해결해야 함.
- ‘한국형 뉴딜’ 정책은 증세를 통해 복지지출 수준을 높이고 노동자와 기업 간 불평등을 개선해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분배 개선, 성장 제고, 고용 증대의 선순환을 가능케 함.
 - 포용과 혁신은 동행하는 관계로서 무엇보다 국민들이 과감하게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조성하는 것이 한국이 지향해야할 포용적 성장의 방향이라고 강조

세션 1. 촛불민주주의의 등장과 새로운 민주주의 패러다임

기조발제. 사회적 정의 없는 민주주의는 존재하는가?

메사우드 롬다니 튀니지 경제·사회적 권리 포럼 회장

-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이어진 대한민국의 촛불혁명과 같이 2010년 12월 이듬해 1월 사이 튀니지에서 일어난 재스민 혁명은 벤 알리 정권의 독재를 막기 위한 청과물 노점상 청년의 자기희생으로 촉발된 시민운동임. 재스민 혁명의 슬로건은 ‘자유, 민주주의, 사회 정의’였음.
 - 튀니지 국민들은 독재의 어두운 과거에서 벗어나 인권 확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등 비가역적 변화를 경험
 - 튀니지 국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금지법과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과 가정폭력을 금하는 법을 의결했고, 청년들은 평화 시위가 그들의 권리를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음.
- 튀니지는 아랍권 국가에서 예외적으로 헌법적 기본권인 표현, 집회, 양심, 신앙의 자유를 향한 중요한 진보를 이뤄냈으나 많은 사람들이 사회 정의의 실현은 매우 더디다고 여김.
 - 끝없는 폭력사태와 군사독재에 처해 있는 리비아, 예멘 등과 비교할 때 아랍권의 유일한 성공사례였던 튀니지조차 현재 시위가 증가하고 있음. 이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많다는 뜻
 - 소외지역 청년층과 시민들은 경제적 기회의 부족, 더딘 사회발전에 인내심을 잃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무시되고 있다는 인식 속에 사회적 분노는 더욱 커짐.

- 사회 정의의 실현은 민주주의 성공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임.
민주주의가 사회 정의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례들을 튀니지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만들어가야 함.

발표 1.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 패러다임

정상호 서원대학교 교수

-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사회적 원동력인 촛불혁명을 비교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패러다임인지 분석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가져온 2016~2017년 촛불을 사회운동 관점에서 비교, 분석해 2002년 촛불(여중생 장갑차 사망 사건), 2004년 촛불(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2008년 촛불(광우병 쇠고기 반대)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함.
 - 촛불혁명의 발생배경, 참여주체, 지향점을 살피고 이것이 미투운동, 대한항공 갑질 문제, 평화협정체제 등과 연관성이 있는지 진단
-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주권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
 -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민주주의를 '국민주권 민주주의'라고 정의하고, 이것이 '민주주의의 패러다임 전환'에 해당되는지 살펴봄.
 - 나아가 이러한 전환이 진행 중이라고 할 때, 패러다임의 조기 안착 또는 성공적 전환을 위해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함.

발표 2. 시민참여 민주주의: 한국의 사례 분석

저스틴 기차드 미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연구교수

- 한국과 스페인의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시민광장(public square) 안과 그 너머에서의 민주주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자 함.
- 한국과 스페인은 2011년 이후 이중의 구조적 위기(경제적 불평등의 위기, 정치적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의 맥락에서 시민광장 혁명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특별한 위치에 있음.
- 스페인 15-M 운동과 한국의 촛불혁명은 두 국가의 제도정치 영역에서 분명히 다른 결과를 가져왔음. 스페인은 2014년 포데모스(Podemos)의 등장으로 정당체제의 변화를 겪은 반면, 한국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정권이 교체됨. 두 사례 모두 '패러다임의 변화'가 구체화되기를 열망하고 있음.
- '촛불 민주주의'가 새 패러다임의 이름이고 포용이 그 변화의 방향이라면, 이 용어들을 정의하는 것은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음.
- 한국의 새로운 민주주의 패러다임은 시민광장 안에서 촛불운동이 외친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됨.
- 새 패러다임은 탈권위주의 시대의 정치·경제 발전의 결과로, 시민광장이 자신들의 것임을 주장할 힘마저 박탈당한 이들의 불만까지 다룰 수 있어야 함.

발표 3. 우리나라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조건: 2016~2017년 촛불민주주의 이후 국민인식조사 결과

윤건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

- 촛불혁명 이후의 국민인식 변화를 지난 4월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제시함. 국민들은 2016-2017년 촛불민주주의와 이후 등장한 문재인 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
 -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일반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3.9%가 2016~2017년 촛불집회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성숙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
 - 촛불민주주의 이후 등장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이 이전에 비해 개선됐다는 응답이 많았고(70.2%), 국민과의 소통(78.3%), 부정부패 해소(75.3%), 민생 안정(71.5%)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식
- 국민들은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이 높은 편이고 국민들의 직접참여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 방식을 선호함.
 - 중앙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등에 대한 신뢰인식은 각각 49.4%, 10.6%, 24.7%, 17.8%에 불과했고, 이 기관들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도에 대한 인식은 각각 39.7%, 36.5%, 31.7%, 26.3%로 낮게 나타남.
 -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은 87.5%, 국민의 국정운영과정 참여의사는 국가 이슈 79.9%, 광역시도 이슈 70.7%, 시군구 이슈 72.4%, 읍면동 이슈 67.1% 등으로 나타남.

세션 2.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발표 1. 한국의 차세대 생산혁명 활용 방안

로버트 앳킨스 미 정보기술혁신재단 회장

- 차세대 생산혁명에서 한국이 직면한 주요 과제와 기회를 논의
 - 범용기술의 발전정도와 특징을 소개하고 차세대 기술의 등장으로 한국이 직면한 두 개의 도전과제와 기회에 대해 논의
- 첫 번째 과제는 기술개발을 위한 혁신과 기업가정신 촉진임.
 - 한국은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이뤘으나 최근 새로운 추격자로 부상한 중국과 인도와 선도자인 미국 사이에 간헐 위험이 존재
 - 선도자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보다 큰 위험 감수, 창의성 제고, 가젤기업 지원시스템 등을 통한 기업가정신 고취 필요. 또한 R&D 다각화, 고성장 가젤기업 활성화, 대학 및 연구실의 상용화 지원 등을 통한 상용화 촉진 필요
- 두 번째 과제는 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제고임.
 - 한국의 생산성 증가율은 지난 10년간 둔화세를 보이며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를 좁히기 위한 추동력도 감소. 특히 대기업 대비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전반의 생산성 제고 필요
 -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 부문의 ICT 활용이 요구되며 전 산업에서의 디지털 혁신을 위하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 필요

발표 2. 포용적 성장을 위한 한국의 전략

강동수 KDI 연구조정실장

- 성장률 하락과 소득불평등 심화는 1980년대 이래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나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가 급속히 악화됨.
 - 소득불평등의 원인은 기술발전, 경제통합, 고령화로 향후 포용적 성장으로 대대적인 정책전환을 이루지 못할 경우 국가의 중장기적 지속발전이 어려움.
-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는 일자리 창출,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지속적 규제개혁 추진이 중요
 - 생산성 증가가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는 있지만 분배를 악화시키는 과거의 경험을 답습할 유인이 높고 소득에만 집중된 정책은 경제 활력을 담보하기 힘들.
 - 4차 산업혁명이 급진전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은 생산물 시장과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개혁이 동시에 추진돼야 하며, 이때 규제 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흡수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충이 중요
- 한국은 혁신과 포용을 아우르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지향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함.
 - 구조개혁으로 자원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고, 기회와 접근성 확대로 창출된 부가가치가 동등하게 배분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발표 3. 기술혁명에 따른 사회적 도전과제: 독일의 대응 경험

마커스 헤스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산업국장

-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을 '제조업의 디지털화'로 정의, 새로운 형태의 가치사슬과 생산네트워크 개발 등을 활용해 기술혁명에 따른 디지털화 전환에 대비해옴.
 - 특히 한국과 같이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의 경우 산업의 디지털화로의 전환이 큰 도전이나 과제
- 독일이 인더스트리 4.0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지원, 국제 협력, 규제체계 개선 등 정책적 대응을 통해 산업현장의 변화를 어떻게 대비했는지를 소개함.
 - 한편 국가별로 산업구조와 기업 여건 등은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강점을 살려 효율적으로 기술혁명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함.

세션 3. 녹색 포용사회로의 대전환

발표 1. 인류세(anthropocene) 시대의 포용 한국: 글로벌 시대의 환경과 인류 위기

마이클 더글라스 미 하와이대학교 명예교수

- 인류세(Anthropocene) 시대의 출현은 지구의 환경과 인류에 복합적인 위기를 야기하고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 문제에 있어 대부분의 정부들은 방어적 태세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정책결정 수준에 있어 인도주의적 위기를 야기함.
- 포용은 인류세(Anthropocene) 시대에서 국가 주권에 기반을 둔 국제체제의 도덕적 필수요건이며, 국가 간 환경과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원천
 - 포용의 전략을 통해 인류가 결합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정부 노력만으로는 어려우며, 분배정의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에 접근해야 함.
 - 국제이주와 관련하여 포용사회를 지향하는 정부는 경제적 이주와 환경적 이주 간의 구별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 포용사회로의 성공은 도시에서 국가 및 국제무대로 확장할 수 있는 역량에 달려 있음.

발표 2. 녹색 포용사회로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 환경과 자원의 위기와 기후변화로 인해 빈발하는 자연재해의 피해는 계층, 지역 및 세대, 그리고 국가에 따라 상이하고 불평등하게 나타남.
 - 환경 분야에서 취약한 계층, 지역, 세대를 포용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녹색 포용사회(Green Inclusive Society)의 건설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해야 함.

- 녹색 포용사회 건설은 헌법, 정부, 권리 및 가치 체계, 경제, 공공 등 국가발전 패러다임과 사회시스템의 녹색화를 통해 가능할 것
 -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기본선(Minimum Line)을 보장하는 정책과 함께 취약한 계층, 지역, 세대를 보호하는 정책이 추진될 필요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글로벌 차원에서 녹색 포용사회 구현을 선도해야 함.

발표 3. 한국 에너지전환의 현재: 도전과 기회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

- 한국은 현재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큰 실험을 하고 있음.
 - 2017년 5월 석탄과 원자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를 대규모 확보하겠다는 공약으로 선출된 문재인 정부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음.
 - 에너지 시스템이 지방 분권화로 발전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 지방 NGO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증가할 것
- 양질의 에너지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
 - 에너지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급 중심의 국가에너지 정책, 에너지 대안 및 분산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장벽, 기존의 재래식 에너지 시스템을 지원하는 이해관계자의 저항, 경제적 지원 부족 등 많은 과제에 대한 도전이 필요
 - 정부의 의지와 더불어 성공적인 에너지전환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시민과 기업이 관심을 갖게 되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될 것

세션 4. 전환시대 포용복지국가의 과제

발표 1. AI 로봇시대, 경제성장의 혜택 확산 방안

리처드 프리만 미 하버드대학교 교수

- 최근 AI 로봇기술은 과거의 자동화 기술과는 다르기 때문에 교육 훈련, 실업지원 강화, 복지지출 증액 등 기존의 정책과는 다른 정책 대응이 필요함.
 - 비교우위 측면에서 신기술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자리 상실이 아닌 임금에의 영향일 것
 - 기술은 고부가가치의 지식노동 중심의 일자리에서 인간과 경쟁하는 기계를 만들어 낼 것
- 소득은 인간에서 기계로 옮겨갈 것이므로 AI 로봇기술이 주는 혜택과는 상관없이 이를 누리기 위한 기계의 소유가 관건이 될 것이며 이에 적합한 정책적 방안 마련이 필요
 - 이와 관련하여 기업에 대한 종업원의 소유권 및 이익분담 확대,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연기금, 뮤추얼펀드, 국부펀드 등 기업자본 소유 확대 등의 정책방안이 논의될 수 있음.
 - 이러한 정책은 조속히 도입돼야 하며 기술에 대한 대중의 소유권이 확대돼야 함.

발표 2. 평등한 사회를 위한 고용·복지정책의 역할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국의 소득분배는 장기적으로 악화 경향을 보여 왔음. 재분배 정책이 확대돼 왔으나 시장에서의 분배 악화를 상쇄할 정도는 아니었음.
 - 이러한 장기적인 소득불평등 변화의 특징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정체돼 있다는 것임.
 -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것은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협상력이 낮다는 구조적인 요인,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높다는 시장 요인, 외환위기 이후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비정규직 고용, 간접고용이 증가한 정책 요인에 의함.
 - 시장, 그리고 일차 분배에 대한 정책적 대응 없이는 불평등 심화를 억제할 수 없음.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의 역할을 확대할 뿐 아니라 기능을 분담하고 방향성을 조율하는 것도 중요함.
- 저임금 근로가 많고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핵심은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임.
 - 이를테면 ‘최저임금 인상’, ‘하청 혹은 프랜차이즈의 공정거래 확립’,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 사업자의 이해대변 기능을 강화’하는 것임.
 - 아울러 소득보장 제도의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적정지표를 선정하고, 5년, 10년, 혹은 그 이후에 도달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는 것임.

발표 3. 불확실성과 불평등에 대응하는 포용적 교육의 과제와 방향

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빠른 기술변화는 지식의 변화를 요구해 직업과 직장에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높일 뿐 아니라 기술을 활용한 자산 축적 등의 원인으로 작용해 불평등을 가속화시킴.
 - 특히 한국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과 불평등은 낮은 출산율, 과도한 사교육 투자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결합돼 나타나기 때문에 포용적 사회를 위한 국가의 정책과 개입이 절실함.
- 교육은 불확실성과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효과적인 수단, 특히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포용적 교육이 필요함.
 - 포용적 교육을 위한 네 가지 방향을 제시
 - 첫째, 양적 포용에서 질적 포용으로의 전환이 필요
 - 둘째, 생활지역에 기반한 균형적 학습과 교육의 생태계를 구축
 - 셋째, 개인들이 학습과 교육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규교육 체제와 접근성을 개방
 - 넷째, 개별적인 특성에 맞춘 복지와 서비스로 아동교육을 전환
 - 포용적 교육을 위한 다섯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
 - 첫째, 보육의 질과 내용의 변화를 전제로 한 유아보육과 교육의 통합적 시스템 마련
 - 둘째, 초·중 의무교육을 통한 기초역량, 학습역량, 시민성 형성
 - 셋째, 고등학교 내 직업교육의 질적 고양, 엄격한 자격제도 수립
 - 넷째,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시민대학' 필요
 - 다섯째,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연구중심 대학원·대학 교육체제 수립을 통한 대학의 질 관리

세션 5. 지속가능한 균형발전과 사회통합

기조발제. 사회통합과 국가균형발전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 우리나라는 산업화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과 효율성 중심의 사회 운영으로 인해 사회 갈등이 증폭되는 결과를 초래
 - 수십 년 동안 진보와 보수, 영남과 호남, 북한과 남한 등 다양한 차원의 갈등이 지속됐으며, 최근엔 세대, 소득계층, 남녀갈등 등 새로운 갈등이 표출

- 일반적으로 사회갈등은 권력·부·명예 등 희소한 자원을 얻기 위한 경쟁과 가치관 및 신념의 차이가 원인
 - 앞으로는 효율성만을 추구하기보다 사회적 약자와 경쟁의 낙오자를 포용할 수 있는 형평성과 균형 감각이 중요. 사회구성원들이 서로를 인정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이 공존할 수 있게 배려하는 것이 필요함.
 - 독일은 헌법에 부자 지역이 가난한 지역을 도와주도록 명시하고, 프랑스는 헌법에 연대의식과 협력관계를 명시

- 균형발전은 사람을 돌보고 살리는 돌봄과 살림 정책인 동시에 어떠한 정책수단에도 뒤지지 않는 사회통합 정책
 - 균형발전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제공,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의 공간범위를 한반도까지 넓혀 통일로 인해 야기될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에 기여 가능

발표 1. 지방소멸 위기와 공간정책 대응

김동주 국토연구원 원장

- 한국의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음.
 - 인구감소가 국토공간에 미치는 영향은 첫째, 빈집, 폐산업시설 등 유휴시설·공간 증가로 인한 ‘국토 골다공증’ 현상, 둘째는 의료·대중교통 등 생활인프라 접근성 취약으로 인한 생활사막화, 셋째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집중 현상 등임.
 - 이들은 결국 지역일자리와 생활편리성 저하, 공간매력도 저하, 정책의 비효율성 등을 초래해 ‘지방소멸’ 현상을 야기함.
-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에 대한 인식 및 공감대 확산과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극복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
 - 본 발표에서는 다음의 전략들을 제시하고자 함. 1) 강소도시권 육성 등 지속가능한 국토 공간 재편, 2) 지역일자리 창출과 공간 매력도 제고, 3) 스마트 축소(smart decline)의 공간 재생, 4) 지역 패키지형 생활서비스 지원 및 삶의 질 향상, 5) 데이터 실증 기반의 공간정책 추진, 6) 중앙과 지방, 지역사회의 공동 대응

발표 2.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위한 성평등 정책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 성평등은 인권과 사회정의의 문제일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전제라는 데 대한 글로벌 합의가 있음.
 - OECD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노동시장의 성 격차가 유지될 경우 한국의 연평균 1인당 GDP 성장률은 2025년까지 2.82%에 그치지만, 노동시장에서의 성 격차가 25% 감소될 경우 3.01%, 50%감소될 경우 3.3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최근 미투 운동의 확산은 성불평등 문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성평등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직접적 계기가 됨.
 - 미투 운동은 직장과 공동체에서 여성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해온 뿌리 깊은 성차별 구조와 관행, 권위주의적 조직문화에 대한 저항임.
 - 미투 운동 이전에도 청년여성들은 여성혐오와 폭력,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는 저출산 대책 비판, 낙태죄 폐지, 초·중·고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 등 새로운 정책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왔음.
-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성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시혜로서의 복지정책을 넘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정책 의제를 포괄하는 다음과 같은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1) 성차별 개선 및 시정 업무 독자적 추진기구 마련, 2) 출산을 회복 아닌 출생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관점으로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 3)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4) 남녀동수 내각 공약 이행 및 대통령 참모진 중 젠더 전문가

비율 확대, 5) 아동, 노인, 장애인, 환자 등 돌봄 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돌봄자(carer) 종합 돌봄 기구 설립, 6) 비동의 간음죄 신설, 낙태죄 폐지, 8) 대통령직속 성평등 위원회 및 각 부처 성평등 정책 담당관실 설치

발표 3. 국가균형발전과 포용적 교통정책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 국가균형발전은 각 지역이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과 계층에 차별 없이 기본수준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의미
 - 대한민국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경제·인구 집중 완화를 위해 10개 혁신도시, 1개 행복도시, 4개 기업도시를 조성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
 - 향후 이들 혁신도시와 행복도시를 자족적인 지역균형 생활거점으로 육성, 기존 7대 대도시와 함께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정착시킬 필요
- 앞으로 대한민국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그 성과를 국민 모두가 누리는 포용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양적 성장과 효율성 중심의 교통정책으로부터 패러다임 혁신이 필요
 - 첫째, 7대 광역대도시, 10개 혁신도시, 1개 행복도시 등 지역균형거점 간을 2시간 이내 고속철도로 연결해 상생발전을 유도함. 둘째, 국민 모두가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교통이동권 및 교통안전을 보장함. 셋째, 지방분권형 교통 투자 및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교통SOC를 구축·운영
 - 또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한반도 전체 균형발전 교통전략을 수립

세션 6.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발표 1.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로드맵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한반도 비핵화 및 북한의 핵전략과 정상국가화 전략

-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남·북·미 각국의 개념화 수준과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올바른 개념 정립
-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검토하고 북한이 생각하는 ‘정상국가’의 모습과 중장기전략을 추론함.

□ 남북정상회담의 비핵화·평화체제 합의 평가

- ‘완전한 비핵화’ 및 ‘핵 없는 세계’ 등 합의 내용이 갖는 전략적 의미를 파악하고 평화정착 관련 합의 내용을 통해 향후 전개될 평화체제 실현방향 전망

□ 북미정상회담의 비핵화·평화체제 주요 쟁점 및 문재인 정부의 평화로드맵 실천전략을 제시

- 비핵화·평화체제의 일괄 타결구도, 예상되는 실행로드맵 유형화, 비핵화 방법론과 관련된 주요 쟁점사항 점검 및 예상
- CVID 또는 PVID를 둘러싼 북·미 사이의 쟁점 검토 및 북미정상회담 이후 바람직한 비핵화 실천방안 제시
- 성공적인 북미정상회담 견인과 안정적인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평화로드맵 실천전략을 제시

발표 2.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및 제도화 방안

이승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 판문점 선언을 통해 재개와 발전의 발판이 마련된 남북교류 협력의 활성화 및 제도화가 시급함.
 - 남북교류 협력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민간 자율성 보장과 국가 역할의 조화, 교류협력의 지속성 및 역진 방지 기제 확립, 시민참여 확대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함.
 - 정부-시민사회의의 협약적 거버넌스 형성을 통한 교류협력 운영 메커니즘 재구축을 중심으로 통일국민협약을 논의해야 함.
- 조합주의적 교류협력 제도화는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남측의 교류협력 대표체들과 북한당국 간 합의가 지속적으로 이행되면 일종의 남북 간 협약 거버넌스를 형성할 수 있음.
 - 남북기본협정의 체결과 별개로 '남북(사회문화)교류협정'의 체결이 필요
 - 남북경제협력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남북 간 기존 합의를 포괄하는 '경제협력기본협정'을 체결하고, 당국 간 상설협의기구로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재가동하는 것이 필요
- 이와 같은 남북교류 협력의 활성화 및 제도화의 기본방향은 남북 교류 협력의 운영기조를 정부 우위의 레짐에서 정부-시민사회의 조합적(corporative) 레짐으로 재편하려는 것
 - 이를 통해 불가역적이고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의 시민사회 친화적 변화를 촉진

발표 3. 동북아 평화 번영과 문재인정부의 지역구상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

-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중장기 생존·번영 전략의 일환으로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함.
 - 동북아지역 내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 속에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생존 및 번영에 우호적인 평화협력적 환경 조성 필요
 -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는 동북아를 포함하되 이를 넘어서는 주변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환경 조성을 우리가 주도해 나가겠다는 중장기 지역 비전임.
- 동북아 및 아시아 정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과제의 실현가능성을 진단하고 구체적 추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다자체제 공약이 지역기구들과 어떻게 공존하며 효율적인 분업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마련이 필요
 - 주변 강대국들의 지역비전들이 갖고 있는 배타성(exclusiveness)을 약화시키고 포용성(inclusiveness)을 확대함으로써 한국의 입지를 확대하고 가교 역할을 증대
-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라는 정책비전을 구성하는 다양한 축들이 유기적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국내 추진체계 확립이 시급함.
 -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신북방·신남방, 한반도신경제지도까지 묶어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위원회 설립이 필요

첨부2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5월 24일(목) 1일차	
13:00 ~13:50	등 록
14:00 ~17:30	<p>특별세션 미래세대,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 개회식</p> <p>세 션 1. 미래세대 목소리 페스티벌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 (청소년 6개팀, 청년 3개팀 참가)</p> <p>세 션 2. 청년 멘토에게 듣는다 최이현 모어댄 대표이사 김희수 (주)커피지아 대표이사</p> <p>토크콘서트 및 폐회식</p>
18:10 ~18:45	<p>특별강연 한국의 변화와 미래 최진석 서강대학교 명예교수</p>
5월 25일(금) 2일차	
09:30 ~10:00	등 록
10:00 ~10:30	<p>개회식 개회사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p> <p>환영사 성경룡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p> <p>축 사</p>
10:30 ~11:50	<p>기조연설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 로버트 라이시 미 UC버클리 정책대학원 교수 한국형 뉴딜의 모색 이정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p> <p>대 답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로버트 라이시 미 UC버클리 정책대학원 교수 이정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p>
11:50 ~13:00	<p>특별강연 식민지분단냉전의 100년을 보내고 평화와 번영 그리고 포용의 새 시대를 내다보며 한완상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p>

	<p>세션 1. 촛불민주주의의 등장과 새로운 민주주의 패러다임</p> <p>좌장 정용덕 서울대학교 명예교수</p> <p>기조발제 사회적 정의 없는 민주주의는 존재하는가? 메사우드 롬다니 튀니지 경제·사회적 권리 포럼 회장</p> <p>발표 1.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 패러다임 정상호 서원대학교 교수(정책기획위원회 위원)</p> <p>발표 2. 시민참여 민주주의: 한국의 사례 분석 저스틴 기차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연구교수</p> <p>발표 3. 우리나라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조건: 2016~2017년 촛불민주주의 이후 국민인식조사 결과 윤건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p> <p>토론 김선혁 고려대학교 교수 안병진 경희대학교 교수 서유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p>
13:00 ~15:00	<p>세션 2.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p> <p>좌장 이한주 가천대학교 부총장(정책기획위원회 위원)</p> <p>발표 1. 한국의 차세대 생산혁명 활용 방안 로버트 앳킨슨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 회장</p> <p>발표 2. 포용적 성장을 위한 한국의 전략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조정실장</p> <p>발표 3. 기술혁명에 따른 사회적 도전과제: 독일의 대응 경험 마커스 헤스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산업국장</p> <p>토론 이무원 연세대학교 교수 장윤종 산업연구원 4차산업혁명연구부 부장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p>
	<p>세션 3. 녹색 포용사회로의 대전환</p> <p>좌장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p> <p>발표 1. 인류세(anthropocene) 시대의 포용 한국: 글로벌 시대의 환경과 인류 위기 마이클 더글라스 미국 하와이대학교 명예교수</p> <p>발표 2. 녹색 포용사회로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p> <p>발표 3. 한국 에너지전환의 현재: 도전과 기회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정책기획위원회 위원)</p> <p>토론 박재목 대전세종연구원 원장 염형철 물개혁신포럼 대표 유카리 다카무라 일본 나고야대학교 교수</p>
15:00~ 15:30	<p>휴식</p>

	<p>세션 4. 전환시대 포용복지국가의 과제</p> <p>좌 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p> <p>발 표 1. AI 로봇시대, 경제성장의 혜택 확산 방안 리처드 프리만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전미경제연구소)</p> <p>발 표 2. 평등한 사회를 위한 고용·복지정책의 역할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대표발표)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p> <p>발 표 3. 불확실성과 불평등에 대응하는 포용적 교육의 과제와 방향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수</p> <p>토 론 조돈문 가톨릭대학교 교수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기획조정본부장</p>
15:30~ 17:30	<p>세션 5. 지속가능한 균형발전과 사회통합</p> <p>좌 장 박준식 한림대학교 교수(정책기획위원회 위원)</p> <p>기조발제 사회통합과 국가균형발전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p> <p>발 표 1. 지방소멸 위기와 공간정책 대응 김동주 국토연구원 원장</p> <p>발 표 2.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위한 성평등정책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p> <p>발 표 3. 국가균형발전과 포용적 교통정책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원장</p> <p>토 론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 정동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김경희 중앙대학교 교수(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히토시 이에다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p>
	<p>세션 6.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p> <p>좌 장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前 통일부 장관)</p> <p>발 표 1.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로드맵 홍 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p> <p>발 표 2.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및 제도화 방안 이승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p> <p>발 표 3. 동북아 평화 번영과 문재인정부의 지역구상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정책기획위원회 위원)</p> <p>토 론 프랭크 자누지 미국 맨스필드재단 소장 진징이 중국 북경대학교 교수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정책기획위원회 위원)</p>
17:30~ 18:00	<p>휴 식</p>
18:00~ 18:30	<p>특별강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前 통일부 장관)</p>

기조세션

로버트 라이시 미 UC버클리 정책대학원 교수



- 現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정책대학원 교수
- 前 하버드대학 정치경제학 교수
- 前 버락 오바마 前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
- 前 제22대 미국 노동부 장관

이정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 現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 前 대통령 정책특보 겸 정책기획위원장
- 前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 前 대통령 정책실장
- 前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 現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 現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前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 前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 前 일본 도쿄대학 경제학부 객원교수

세션 1. 촛불 민주주의의 등장과 새로운 민주주의 패러다임

정용덕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現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現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 現 한국행정학회 고문
- 現 미국행정학회(ASPA) 이사
- 現 한국정치학회 이사

메사우드 롬다니 튀니지 경제·사회적 권리 포럼 회장



- 現 튀니지 경제·사회적 권리 포럼 회장
- 前 튀니지 인권연맹 부위원장
- 2015년 노벨평화상 수상

정상호 서원대학교 교수(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現 서원대학교 교수
- 現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
- 前 한국정치연구회 회장
- 前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 前 한국NGO학회 이사

저스틴 기차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연구교수



- 現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정치학과 연구교수
- 前 펜실베이니아대학교 한국학 Kim Program 박사 후 연구원
- 前 파리정치대학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연구조교

윤건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



- 現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
- 現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前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前 서울대학교 박사 후 연구원

김선혁 고려대학교 교수



- 現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 교수
- 現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 現 환태평양 대학협회(APRU), International Policy Advisory Committee(IPAC) 위원
- 現 Asia-Pacific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Education(APAIE) 이사

안병진 경희대학교 교수



- 現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 前 경희사이버대학교 부총장
- 前 코리아헤럴드신문 객원논설위원
- 前 한국아메리카학회 이사

서유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現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
- 現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 前 대한정치학회 부회장
- 前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세션 2. 경제발전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대응

이한주 가천대학교 부총장(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現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위원장
- 現 가천대학교 부총장(경제학과 교수)
- 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
- 前 한국사회경제학회 고문

로버트 앳킨슨 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회장



- 現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 회장
- 前 미국 진보정책연구소 부원장
- 前 미국 진보정책연구소 기술·신경제 프로젝트 부장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조정실장



- 現 KDI 연구조정실장
- 前 기획재정부 부총리 자문관
- 前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금융경제연구부장
- 前 OECD 이코노미스트
- 前 뉴욕주립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마커스 헤스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산업국장



- 現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산업국장
- 前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유럽정책실 역내시장과 과장
- 前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브뤼셀 지부 대표단장
- 前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유럽정책실 과장

장윤중 산업연구원 4차산업혁명연구부 부장



- 現 산업연구원 4차산업혁명연구부 부장
- 前 대통령비서실 경제구조조정기획단 파견(산업, 외국인투자)
- 前 공정거래위원회 경제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前 서울특별시 산업진흥대책위원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現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現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前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 前 계명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前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이무원 연세대학교 교수



- 現 연세대학교 교수
- 現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위원
- 現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자문위원
- 現 옥스퍼드대학교 기업평판센터 국제연구회원

세션 3. 녹색 포용사회로의 대전환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 現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 前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 前 한국환경정의 공동대표
- 前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마이크 더글라스 미 하와이대학교 명예교수



- 現 미국 하와이대학교 명예교수
- 前 싱가포르국립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교수
- 前 미국 하와이대학교 세계화연구센터 소장
- 前 미국 하와이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 現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 現 기상청 남북기상협력위원회 위원
- 前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 前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現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現 서울대학교 교수
- 現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위원
- 現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
- 現 한국환경사회학회 회장

박재묵 대전세종연구원 원장



- 現 대전세종연구원 원장
- 現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 前 환경운동연합 공동 대표
- 前 한국사회학회 회장

염형철 물개혁신포럼 대표



- 現 물개혁신포럼 대표
- 前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前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자치위원회 위원
- 前 환경운동연합 서울협의회 사무처장

유카리 다카무라 일본 나고야대학교 교수



- 現 일본 나고야대학교 환경대학원 국제법 교수
- 前 일본 류코쿠대학교 법학부 교수
- 前 일본 류코쿠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 前 일본 시즈오카대학교 인문사회과학부 부교수

세션 4. 전환시대 포용복지국가의 과제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 現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 前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前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前 국회 입법조사처 자문위원

리처드 프리만 미 하버드대학교 교수(전미경제연구소)



- 現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
- 現 하버드대학교 법학대학 노동과 직장생활 프로그램 공동책임자
- 現 런던정치경제대학교 경제효율센터 노동시장분야 선임연구원
- 現 전미경제연구소 과학 및 기술인력 프로젝트장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現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前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
- 前 국제노동기구 초빙연구원
- 前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경제산업팀장
- 前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現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現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연구소 소장
- 現 사단법인 새로운학교 네트워크 자문위원
- 前 세종시 교육청 교육혁신 추진위원회 위원

조돈문 가톨릭대학교 교수



- 現 가톨릭대학교 교수
- 現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위원
- 現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 現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 前 사회공공연구원 이사장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現 중앙대학교 교수
- 現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
- 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
- 前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 前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 前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원장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기획조정본부장



- 現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기획조정본부장
- 前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특임센터 소장
- 前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미래교육전략분과) 위원

세션 5. 지속가능한 균형발전과 사회통합

박준식 한림대학교 교수(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現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
- 現 한림대학교 비전협력처장
- 現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
- 前 한림대학교 기획처장
- 前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부원장
- 前 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 초빙연구원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 現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 現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 前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 前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 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김동주 국토연구원 원장



- 現 국토연구원 원장
- 現 한국지역경제학회 회장
- 現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 現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위원회 위원
- 現 EAROPH 한국대표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 現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 現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협의회 공동의장
- 現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 現 대통령소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자문위원
- 現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장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 現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 現 동아시아교통학회 국제학술위원장
- 現 세계교통학회 운영이사
- 前 한국교통연구원 연구부원장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



- 現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 現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前 SH공사 사장
- 前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정동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現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장
- 現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 前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 前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김경희 중앙대학교 교수(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現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
- 現 국가인권위 차별조정위원회 위원
- 前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 前 방송위 보도교양 심의위원

히토시 이에다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교 교수



- 前 일본 철도청 근무
- 前 독일 항공우주연구소 객원 연구원
- 前 필리핀 대학, 칭화대, 북경대 객원교수
- 前 일본 동경대학교 교수

세션 6.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前 통일부 장관)



- 現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
- 前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 前 제32대 통일부 장관
- 前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 前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 위원
- 前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한연구센터장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現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 現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前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 前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 前 북한연구학회 총무 및 연구 이사

이승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 現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 現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現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
- 現 청와대 국가안보실 자문위원
- 現 외교부 혁신이행자문위원장
- 現 통일부 정책실 자문위원
- 現 한반도평화포럼 외교안보전략센터장

프랭크 자누지 미국 맨스필드재단 소장



- 現 맨스필드재단 소장
- 前 국제사면위원회 미국 지부 부상무이사
- 前 미 상원 외교 위원회 동아시아 및 아태평양부 정책실장
- 前 미 국무부 정보 조사국 분석관

진징이 중국 북경대학교 교수



- 現 북경대학교 한반도연구중심 교수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現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장
- 現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획조정위원장
- 現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위원장
- 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 前 북한연구학회 회장
- 前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 前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이념분과 위원
- 前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통일외교팀장

특별세션 1. 미래세대 목소리 페스티벌

하자센터 10대 연구소팀(성윤서 외 7명)



- 청소년의 시각으로 청소년 문제를 연구하는 청소년 주도의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청소년노동인권)팀(홍승민 외 1명)



- 성남시 청소년들을 대표하는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의원

광주꿈드림청소년단×세학자팀(김연영 외 3명)



- 광주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기관을 대표하는 학교 밖 청소년 참여기구, 세학자(세상이학교 인자퇴생)는 2010년부터 운영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팀(천화병 외 4명)



- 한국어과정, 공교육위탁과정, 검정고시과정 등 여러 단위에서 공부하고 있는 안산 내 중도입국 청소년 모임

1∞(One finity)(유지연 외 4명)



- 청소년자살예방활동, 청소년 미디어활동, 청소년정책참여활동 등을 진행하는 모임

대구시 수성구청소년수련관팀(배향현 외 3명)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수성구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구성된 팀

한반도정책컨센서스(오세진 외 4명)



- 2016년 창립된 청년 주도 정책협의체

청년유니온(김병철 외 1명)

- 청년일자리·노동문제를 청년들 스스로 해결하고자 2010년 창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

민달팽이유니온(이한솔 외 1명)



- 2011년 청년 주거 문제를 다루기 위해 청년당사자가 직접 모여 구성된 조직

특별세션 2. 청년 멘토에게 듣는다

최이현 모어댄 대표이사



- 現 모어댄 대표이사
- 청년벤처 포럼 어벤처스 대상
- LG소셜펀드 대상
- 도전 K!스타트업2016 우수상
- 우수청년기업 중소기업청장 표창
- 아시아소셜벤처대회 대상

김희수 (주)커피지아 대표이사



- 現 (주)커피지아 대표이사
-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회적기업 수상
- 하이서울 우수상품 브랜드 선정
- 장애인의날 서울시장 표창

첨부4

행사장 약도 및 취재지원 계획



- 언론의 취재편의를 위해 5월 25일(금) 행사장 내 프레스센터/기자 회견장(호텔본관 3층 대금) 운영
- 기조세션 로버트 라이시 교수의 경우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 많아 합동 기자회견으로 진행(12:00~12:40, 순차 통역 제공)
- 세종 기획재정부 청사 후문(07:40 출발) → 더케이호텔(09:40 도착) 간 버스 운행
- 서울 3호선 양재역 9번출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앞 → 더케이호텔 간 20~30분 간격 셔틀버스 운행